

광주 창조경제센터 예산 ‘뜨거운 감자’

시의회 ‘최순실 예산’ 논란에 삭감 고민…지역 주력 자동차산업 장에 ‘딜레마’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광주시의회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고려하면 타 시도처럼 전액 또는 일부라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센터의 순기능, 특히 광주의 역점사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봤을 때 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사업 지원비 10억원,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과 같은 규모로 국비 지원 비율이 늘어나면 시비도 일부 증가할 가능성

도 있다.

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놓고 다음 달부터 심의에 들어간다.

시는 일단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안을 짰으나 시의회로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지, 더 축소하거나 아예 전액 삭감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년반 동안 낙후한 송정매일시장 개선사업과 자동차 부품분야 창업 지원으로 그 역할과 성과를 지역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센터의 순기능을 인정해 지원 예산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센터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자는 사업의 목

적을 잘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예산 지원 유지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이 자동차부품 산업 선도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서민생활 지원 등에 집중되며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시의회가 센터 지원 예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최순실·차은택 예산’ 의혹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자칫 의회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다.

타 시도도 센터 지원 예산 유지와 삭감이 엇갈리고 있지만 삭감 쪽이 많은 점은 예산 유지에 부담이다.

전남도의회가 전일 상임위에서 도비 10억원과 관련 펀드 예산 20억원 등을 모두 삭감했고 서울시도 센터 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액 철회했다.

경기도의회도 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도비) 15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제주의 경우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 예산 지원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의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은 센터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시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상임위만이 아닌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촛불집회 ‘靑 둘러싸기’ 가능할까

경찰, 내일 울곡로 북쪽 제한…주최측 ‘집행정지’ 신청

김정숙 판사 “조건없는 집회 허용, 민주주의 국가 증명”

26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도 주최 측은 ‘청와대 둘러싸기 행진’을 추진,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대리해 26일 청와대 앞 행진 제한통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금지 신청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인근 신교동 교차로와 삼청로 등을 행진하는 경로를 포함해 모두 17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울곡로 이북으로의 집회·행진을 금지·제한했다. 이에 주최 측은 경찰이 금지·제한한 4개 집회 장소와 4개 행진로에 대해 법원에 집행금지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과 19일 집회에 서 주최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민들로 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지난 12일 사상 첫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사진)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경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4회 사법시험(연수원 24기)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광주지법 판사를 거쳐 2005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를 조건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김 부장판사는 보수단체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최순실 유탄’ 검찰 정기인사 연기되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계속 확산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

불확실성도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이 ‘시계(視界) 제로’ 상태로 빠져들면서 검찰에도 불통이 튀는 모양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 접어들고 특별검사 수사로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상적인 인사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꽃’이

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달에 이뤄진다. 검사장 인사가 마무리되면 대략 보름 간격으로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른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

8월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접화되고 급기야 박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 상황이 됐다.

특히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3당은 이르면 다음 주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달 9일까지는 본회의 표결 일정을 짜고 있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한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모든 대통령 권한은 정지돼 사실상 검찰을 비롯한 공직자 인사가 ‘얼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경실련, 박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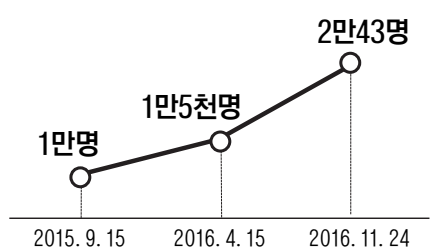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킹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례없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라며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나주 빛가람동 인구 추이



나주 빛가람동 인구

2년 9개월만에 2만명

市, 12년만에 10만명 회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 빛가람동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17면〉

나주시는 24일 한전KPS 한승우(54)씨가 빛가람동의 2만번째 주민이 됐다고 밝혔다. 빛가람동 인구 2만명 시대는 2014년 2월 빛가람동 주민센터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2년 9개월만이다.

지난해 9월 15일 1만명, 지난 4월 15일 1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2만번째 주인공에게 환영 꽃다발 등을 전달하고 축하했다.

이날 현재 빛가람동 인구는 8117가구, 2만43명이다. 나주를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과 수도권에서 전입 온 가구는 6400가구, 1만5572명이다.

혁신도시 인구증가로 나주시 전체 인구가 지난 4월, 12년 만에 10만명을 회복하는 등 늘고 있다. 10월 말 현재 10만2669명이었으며 연말까지 10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24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6차 한국지방신문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사 대표들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 남영만 경남신문 회장,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 여창한 매일신문 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최현필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지방신문협회, ABC부수공사 제도 개선 힘 모은다

광주에서 제46차 정기총회

19대 대선 보도 연대하기로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신문사들이 힘을 모아 불합리한 ABC부수공사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에 치러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지역별 선거 보도 연대와 공동 보도 등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한 매일신문 사장·이하 한신협)는 24일 오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제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ABC협회의 유료 부수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매년 ABC협회의 유료공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지방신문 광고 집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과 유료 부수 조사에 따른 비용 전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한신협은 문화관광부의 ABC협회 유료 부수 공사제도와 관련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지방신문협회의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한국신문협회에 ABC 유료 공사제도 개선안을 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신협은 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한신협 회원사들이 연대해 선거 보도를 공동으로 하기로 뜻을 모았고, 각 지역 측에 대해 공동 보도하기로 했다.

한신협은 이날 행사에 윤장현 광주시장을 초청해 광주 시장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 자동차를 주제로 내년에 열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한 매일신문 사장, 이희종 강원일보 사장, 남영만 경남신문 회장, 송광석 경인일보 사장,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이 참석했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062) 513-4307 (전남대 법대졸업)

정직 · 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 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 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필필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 ~ 12:00 야간: 19:00 ~ 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 ~ 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